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서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포천시 실운동에 살고 있는 문순이(79), 김봉수(77), 김복순(66)씨에게 전달했다.



아이코리아 이정희 회장이 추천한 박해성·박민희 학생에게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전달했다.



김미자 포천은평나무직접식자 회장이 추천한 서삼아(18), 박기민(60), 박순자(67)씨에게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각각 전달했다.



이병례 직접식자 회원이 추천한 이종현(70), 양대규(61)씨와 이문(60), 박순자(67)씨에게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각각 전달했다.



임선화 주부명예기자단 내촌면지부장이 추천한 이정자(76)할머니에게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전달했다.



임선화 주부명예기자단 내촌면지부장이 추천한 나영옥(40)씨에게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전달했다.



정기모 포천문인협회 이사가 추천한 이옥순(58)씨에게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전달했다.



현금 김기숙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이 추천한 박성문(39)씨에게 현금 10만원, 쌀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전달했다.

본사는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한 성금과 물품을 포천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훈훈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8월25일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김중현 고문과 최두열 포천신문사 전무이사는 관내 어려운 이웃 15명을 직접 방문해 현금과 쌀, 양말 등을 전달하고 건강하고 밝게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아이코리아 이정희 회장이 추천한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고 있는 고등학생과 초등학교생에게 각각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5켤레씩을 전달하고 비록 어렵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기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 성금 및 물품 전달식

고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사회에 봉사하는 일꾼으로 자라 달라라는 마음을 전했다.

군내면의 경우, 이병례 직접식자 회원이 추천한 어려운 이웃과 이한정 직접식자 회원이 추천한 이웃들에

게 역시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기도 했다.

주부명예기자단 임선화 내촌면지부장이 추천한 할머니는 2~3평되는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으며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어렵게 살고 있으며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으나 몸이 허약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웃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김미자 대한직접식자 은평나무 봉

사회장이 추천한 포천동 이웃과 송경희 직접식자 회원이 추천한 이웃은 물론 황금전 직접식자 회원이 추천한 분, 김기숙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이 추천한 이웃, 정기모 포천문인협회 이사가 추천한 비닐하우스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는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분이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031-542-150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택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이야기 한마당



이보용 본지 지문위원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형편도 안 되는데도 아들인 나를 대가로 유학을 보냈다. 대구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 싫었다. 그 결과는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로 나타났다. 1학년 8반, 석차 68/88,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갖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성적을 내릴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기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작농을 하면서도 아이를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임의로 기록된 성적표를 석차 1/88로 고쳐 아버지에게 보여드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보통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대가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식은 공부를 잘했더니'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제.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했다. '명순(아버지)이'는 자식 하나는 잘 봤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제' 했다.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아버지의 마음

했고,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떡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 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총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교수가 되었다. 당신이 나의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살이 된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해 '어머,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 요...' 하고 시작하려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민우(손자)가 듣는다'고 외쳤다.

자식의 위조된 성적을 알고 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박찬석 경북대 총장) 짧지만 얼마나 감동적인 글인지요. 몇 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못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출처: 한국일보)

(문의 011-342-5834)

불우이웃돕기 성금 70만원 기탁

세차아파트 임차인회 염영화 회장 활동비 절약해서

포천시 선단동 소재 세차 선단마을 아파트 임차인회(회장 염영화)는 8월21일 포천신문사를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7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염영화 임차인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임차인회장으로 세차아파트를 부도위기로부터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총 398세대 중 362세대가 분양을 받는데 일조해 왔다"고 밝히고 "그동안 매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절약하여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탁하게 되었다"고 밝



포천시 선단동 소재 세차 선단마을 아파트 임차인회 8월21일 포천신문사를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7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다.

김영택 기자 best114@paran.com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포천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

포천시는 저소득층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2004년도에 오토바이 사고로 건강상태가 나쁘고, 부인은 각종 질환을 겪으며 컨테이너박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영북면 문암리 류인정씨의 딱한 사정을 알고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작고 아름다운 집을 신축 중에 있다. 9월 중순이면 류인정씨는 비록 작은 집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사업'은



포천시는 저소득층 가정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이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시설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부족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김연택 기자 uralism@nate.com

웃음 넘치는 세상 만들기 ⑦ 웃음의 20 가지 성공법칙

1. 일소일소 일노일노. 젊어지려면 웃고 늙으려면 화내라.
2. 사람만이 웃을 줄 안다. 사람을 만들려면 웃음부터 가르쳐라.
3.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다. 당신이 웃고 있는 한 더 이상 위계양은 악화되지 않는다.
4. 웃음이 없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웃음으로 지위를 확보하라.
5. 웃으면 면접은 무사통과다. 웃음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6. 웃음은 사기충천의 핵폭탄이다. 웃음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들어라.
7. 웃음은 미남미녀를 만들어 준다. 성형수술 대신 웃음으로 대체하라.
8. 돈 없이 하는 운동법은 웃음밖에 없다. 영양대 대신 웃음을 복용하라.
9. 웃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자

10. 웃음은 부 작용 없는 탁월한 진통제다. 아프면 웃어라.
11. 웃음은 만국 공용어다. 서로의 장벽을 무너뜨리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
12. 웃음은 신뢰감을 심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웃음으로 믿을 수 있는 메이커가 되라.
13. 웃음은 대인관계의 윤활유다. 누구하고나 수월하게 일이 진행 된다.
14. 웃음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마술사다. 웃음으로 치장하라.
15. 웃음은 행복에 취하게 만든다. 행복하려면 술 대신 웃음을 선택하라.
16. 웃으면 의식이 저절로 변화한다.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17. 웃음은 어디서나 중심인물로

만들어준다. 대통령이 되려면 웃음부터 배워라. 18. 웃음은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킨다. 어려움이 닥치면 웃음으로 무장하라. 19. 웃음은 기억력을 증진시킨다. 공부하기 전에 웃고서 하라. 20. 부모 앞에서 잘 웃는 사람이 효자다. 거울에 비쳐보며 효도 연습을 하라. **웃음 10계명과 웃음 20가지 성공 법칙을 잘 활용한다면 더 더욱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김순희 웃음치료사 (문의: 018-222-1790)

경 제3대 포천신문 조사위원회 임원 취임 축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포천신문이 전국 최고의 지역정론지로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사를 취재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미담을 제보하는 등 포천신문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봉사과 동시에 위원회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3대 임원현황			
▶위원장	박노설	▶고문	조정선
▶부위원장	김광분	▶상임고문	최두열
▶부위원장	손영배	▶감사	우석제
▶부위원장	구광식	▶감사	서길석
▶고문	김종현	▶총무	김형석
▶고문	이복용	▶부총무	임상빈